

해양학자의 환경일기 '서른 번째 기록- 물범 기기 부착 관측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타적 유전자

윤승태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해양학전공 조교수



서울대공원의 점박이물범.

뉴스스

지난 4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프랑스 니오르(Niort)에 위치한 쉬제 생물학 연구 센터(Centre of Biological Studies Chize, CEBC)에서는 코끼리물범 및 웨델물범 심포지엄(Elephant and Weddell Seals Symposium)이 열렸다. 본 심포지엄의 부제는 '남극해 해양 및 생태 관측 연구 20주년(20 years of observation of the Southern Ocean oceanographic observation and ecological studies)'으로 남극해에서의 물범 부착 관측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겸하는 심포지엄이었다.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필자는 해양 포유류에 기기를 부착해 해양을 관측하는 것의 잠재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그 관심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물범 부

착 자료를 활용한 남극 로스해에서의 용빙수 순환 연구' 과제를 수행 중(2022-2025)이며, 극지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급격한 남극 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 전 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기술 개발' 과제(2023-2031)에서도 물범 부착 관측을 공동으로 수행 중이다.

필자는 다행히도 필자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물범 행동 반응 연구를 수행 중인 동료 연구자가 본 심포지엄에서의 연구 발표를 제안해 준 덕분에 물범 심포지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22년과 올해 남극 아문젠해에서 수행했던 웨델물범 부착 관측 결과가 운이 좋게도 구두 발표 연구로 선정되면서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었다.

지난 4월9일 인천 공항에서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장장 하루 반나절의 긴 이동 끝에 쉬제 생물학 연구 센터에 도착했다. 심포지엄이 개최된 장소의 규모는 국제 심포지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작았지만 20주년 기념행사에 걸맞게 해양 포유류 부착 관측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은 모두 만나 볼 수 있었다.

세계 최초로 물범 부착 관측을 시작했던 마이클 패닥(University of Saint Andrews), 국제 물범 관측 협력 그룹인 AniBOS(Animal Borne Ocean Sensors)의 공동 대표 중 한 명인 클라이브 맥마흔(University of Tasmania), 그리고 수많은 물범 부착 관측 논문을 출판한 크리스토프 기넷(CEBC), 마크 힌텔(University of Tasmania) 등이 물범 관측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심포지엄이 소규모이다 보니 발표 중간의 커피 휴식 시간, 점심시간에도 이분들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물범 관측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제 협력 과제 개발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향후 국제 협력 과제 개발 가능성도 높일 수 있었다.

심포지엄 발표를 통해서도 최신 연구 동향 파악을 통해 물범 부착 관측 자료의 다양한 활용 방안(지형 파악, 조석 파악, 해수 특성 변화, 소리 정보 등등), 센서 개

발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 학회에서는 여러 제약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물범 관측이 가지는 한계점과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시간 구애 없이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필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물범 부착 관측에 대한 저변이 부족하고 관심도 또한 국외에 비해 낮은 편이다. 탄소 저감의 필요성이 날이 강조되는 지금, 기후변화 연구도 관측 선택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미래에는 친환경적 관측 방식인 무인 혹은 자연 즉, 해양 생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선택 관측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물범 부착 관측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앞으로 국내 물범 부착 관측의 발전과 국제 사회에서 국내 물범 부착 관측 그룹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친한 동료들에게 실험실 앞에 물범 동상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해당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 많은 독자분들께서도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전남형 지역특화 일자리' 지방 소멸 해결책으로

기고

한숙경

전남도의원



지난 4월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세컨드 홈' 정책을 발표했다. 세컨드 홈 정책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소멸 예정 지역에 도시민의 유입을 높여 인구 소멸 완충 역할을 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생활·방문 인구를 늘려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좋지만 현장의 반응은 사실 기대감보다 우려가 크다. 인구감소 지역은 투자 여력이 거의 없어 인지도 높은 일부 지방 도시나 관광지 인접 지역으로만 유입 인구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유입 수요를 확보하기 힘들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의견도 다수다.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파격적 세제 혜택 이상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거시적 관점에서 사람이 물리고 돈이 들게 만들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서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그 답을

찾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와 정주 인구 유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성 높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적 수요에 발맞춰 최근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고용 상황이나 인력 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 요건을 완화 또는 지원 수준을 향상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보성군의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은 그중에서도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보성군의 경우 영농철에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변 도시지역의 구직자를 발굴해 연결해 주고 있다. 특히 농촌 인력 유인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관외 거주자가 구직을 신청하면 교통비와 숙박비 등 약 3만 5000원, 농가는 중식비와 간식비 1만 2000원, 농산물 제조 가공 기업에 4대 보험 실비를 참여 인원 1인에 대해 1일 기준으로 각각 지급해 준다.

상시적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농촌 일자리 여건을 조성해 정주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미 일자리 알선 실적 이 목표 대비 215%인 4300건을 달성하는 등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필자 역시 지난 3월 제378회 임시회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보성군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전남형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을 강조한 바 있다. 일자리를 매개로 도시민의 유입을 도모하는 선도 사례이기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롤모델로 삼아 전남형으로 더욱 발전시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서도 최근 지역 수요 맞춤형으로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소규모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력 양성 사업, 원도심 활성화 창업 지원,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K-드론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등으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200여명이 취업 또는 창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사·군에서 직접 기획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구직자를 창출해 나간다는 좋은 의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민 등 관외 거주자의 진입장벽 또한 대폭 낮춰 인력 유인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길 바라는 바이다.

'전남형 지역특화 일자리' 아말로 지방 소멸의 위기에 맞서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부흥을 이끌 훌륭한 투트랙 전략이 되어줄 것이다. 전남도가 보다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기점을 열어가길 바란다.

모두의 오월

기고

김민식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남도청을 점령함으로써 열흘간의 5·18 민주화 운동은 종결됐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듯이, 5·18민주화운동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으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이처럼 5·18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오월 정신은 국민 모두가 '당연히' 계승해야 하는 정신이며,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이러한 오월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기 위해 매년 5월이 되면 5·18을 기억하기 위한 수많은 행사가 열린다. 우리 지청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5·18민주화운동을 5월 한 달간 개최한다.

5·18민주화운동은 지난 5월 7일,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학생 60여 명과 함께한 '목포 오월길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총 3차례 진행되는 관내 중학교 3개교 학생 417명과 함께하는 '민주역사 끝없는', 5월 22일 14시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5·18연구소 전임교수인 김희송 교수(전남대학교 5·18연구소)와 서부원 교사(살레시오 고등학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5·18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제44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해 왔던 숭고한 민주주의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왜 우리 모두의 오월로 기억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난 14일 오후 충남 서천군의 한 해변가에 야광충이 파랗게 발광하고 있다. 일명 '야광충'으로 불리는 '녹틸루카'는 플랑크톤의 한 종류이다. 자체발광 능력을 지녀 '발광 플랑크톤'으로 불린다. 파도나 선박의 움직임 등 외부의 강한 에너지를 받으면 놀라서 자체 발광하며,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번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스

全南日報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